

# '13월의 월급' D-2...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일부터

오전 6시~자정까지 30분 단위로 접속 가능  
 '환급·추가 납부 세액' 얼마인지 볼 수 있어  
 의료비 확인 안 되면 신고...20일 추가 제공  
 올해부터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계산해볼 수 있게 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접속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었지만, 2시간 확대했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긴다. 접속 종료 경고창(5분 전·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신고 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얼마를 더 내야 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각 근로자는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볼 수 있다"고 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18일부터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로 하면 된다. 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가능하다. 본인 확인은 신용카드·아이핀(I-Pin)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공제 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 가족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2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대신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

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제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다. 안경 구매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비 명목으로 연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년 돈(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긴급제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신봉우기자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1년 1월15일부터	홈택스-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15~17일	근로자-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월18일부터	근로자-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1월20일부터	홈택스-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2월28일까지	근로자-회사	공제신고서 제출
3월10일까지	회사-홈택스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올해 달라진 주요 항목**

①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항목	제공내용
안경구입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한 비용
월세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존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실손의료보험금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사로부터 일괄 수집
긴급제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8월 전국민 대상 지원금 관련 기부금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한도액 30만원 상향

결제수단 및 사용차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3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80%	30%
도시공영박물관·미술관	30%	60%	8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80%	40%

③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50세 이상 3년간 납입한도 200만원 상향  
 - 총급여액 1.2억 원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홈플러스, 홈스테이 솔루션 기획전** 13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홈스테이 솔루션' 기획전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길어지는 '집콕' 생활로 인해 집밥, 홈술, 홈베이킹, 홈트레이닝 관련 용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홈스테이 솔루션' 기획전을 진행한다.

## 2021년 새해 순천지역 기업체 경기전망

순천지역 주요 제조업, '경기회복 기대심리 개선 중'

순천상공회의소(회장 김종욱)는 최근 관내(순천, 구례, 보성)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경제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호전'으로 예상한 업체가 55.9%, '악화' 및 '매우 악화'로 예상한 업체가 44.1%로 조사되었다. 최근 세계 주요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수출 회복세가 주요 제조업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97'로 나타나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1/4분기(93), 2020년 1/4분기(95)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설비투자(79→100)와 매출액(76→97) 항목을 포함한 영업이익(62→93), 자금조달여건(69→79) 항목 모두 직전분기에 비해 소폭으로 상승하여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다소 회복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와 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하여 대다수의 업체(79.4%)가 올해 사업 계획수립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의 시장전망이 아직 불투명(64.3%)하고 코로나 종식에 대한 의문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됨(28.6%)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 완료한 업체(20.6%)의 57.1%는 보수적으로, 42.9%는 공격적으로 투자계획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보수적인 계획을 수립한 업체의 100%가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소극적 경영'을 위해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올해 신규채용 인원 계획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릴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82.3%에 달해 '지

난해보다 줄일 것'이라고 답한 비율(17.6%)에 비해 크게 높았다. 올해 수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호전"될 것으로 전망(85%)하는 기업이 "다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15%)하는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하락 중인 환율의 감내 가능한 최저수준은 1달러당 1,051~1,150원이라는 응답이 83.4%를 차지했고 응답 업체의 평균 환율은 1,103.5원으로 조사됐다. 순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지역 주력 업종인 철강과 화학 업종의 경기순환 사이클을 반등과 수출 및 고용 회복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등 경기 회복을 전망하는 업체의 수가 직전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완전한 경기회복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동부채무본부김승호기자

## 시중 돈 넘친다 3178조 '사상 최대'...자산버블 우려

지난해 11월 시중 통화량 3178.4조  
 단기자금 협의통화 1150조 육박

시중에 풀린 돈이 3170조원을 돌파했다. 또 사상 최대치다. 과다하게 풀린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드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산시장 거품(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중 시중 통화량은 광의통화(M2) 기준 3178조4000억원(평균·계정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대비 27조9000억원(0.9%)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평잔·원계열) 통화량은 282조원(9.7%) 늘어났다.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9%대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시중 통화량이 역대급으로 불어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정책 지원 등으로 가계와 기업대출 등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11월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통화량은 전월대비 10조원 늘어난 160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첫 160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 통화량은 일종의 대기자금 성격인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 예금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통화량은 15조8000억원 늘었다. 기타금융기관은 4조원, 기타부문의 2조2000억원 늘어났다. 통화량은 단기상품 위주로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들의 단기 특정금전신탁 예

치가 늘어나면서 2년미만 금전신탁이 7조9000억원 증가했다. 요구불예금도 6조5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도 4조8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단기자금 지표인 M1(협의 통화)은 1148조원으로 전월대비 12조8000억원(1.1%) 늘어 M2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연재된 수익률을 찾아 움직일 수 있는 단기성 자금이 그만큼 빠르게 늘었다는 얘기다. 막대한 유동성은 새해 들어 증시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10조6563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과열 양상에 중앙은행과 정부는 잇따라 경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실물 경제는 상당히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김민정기자

## GM, 배송용 전기트럭 사업 시작...올해 말 출시 예정

첫 고객은 페덱스...전기트럭 500대 사기로



제너럴모터스(GM)가 올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배송용 전기트럭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CNN,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GM은 배송용 전기트럭 서비스 브라이드롭(BrightDrop)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브라이드롭은 올해 말 상업용 배송용 전기트럭 EV600을 출시한다. 이 트럭은 1회 충전으로 250마일(402km)을 주행할 수 있다. 이는 포트자동차가 최근 공개한 배달용 전기밴 및 아마존과 손잡은 전기

차 스타트업 리비안 차량과 겨룰 수 있는 수준이라고 WSJ은 전했다. 영국 전기차 스타트업 어라이벌도 현대차의 투자를 받고 전기 배달밴을 테스트하고 있다. 브라이드롭의 첫번째 고객은 운송업체 페덱스다. GM은 페덱스가 올해 말 전기트럭 500대를 사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덱스 외 다른 고객에게는 내년 초 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드롭 트럭은 GM이 새롭게 개발한 '얼티엄 배터리'를 장착한다. GM은 한국의 LG화학과 함께 미국 오

하이오주에 23억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아울러 브라이드롭은 몇달 안에 새로운 전기 구동 4륜 화물운반대인 EP1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배송기사가 트럭이나 주변 창고에서 가져온 물품을 최종 목적지로 운반하는 데 쓰인다. GM에 따르면 시범 운영에서 페덱스는 EP1로 25% 더 많은 짐을 처리할 수 있었다. EP1은 최대 200파운드(90kg)를 운반할 수 있으며 올해 초 페덱스에 인도될 예정이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 브라이드롭에 대해 설명했다. 바라는 급증한 전자상거래 수요와 친환경 이동수단을 사용하라는 정부 압력에 직면한 배송 업체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M은 2025년 전기차 비중을 전체의 4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브라이드롭 소식이 알려진 이후 GM 주가는 2009년 파산했다가 2010년 다시 성장한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서선욱기자